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잔인한 장면, 누군가 고통 받는 장면은 가능한 한 피하려 합니다. 어제는 TV에서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기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좁은 콘크리트 공간에 갇힌 동물들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 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당했던 일을 정면으로 보고 듣는 건 더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론을 맡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잔인함과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숨 작가의 소설 <한 명>은 2016년에 한국에서 출판되었고 이 작품을 브루스 폴턴, 윤주찬 부부가 영어로 번역한 <One Left>는 2020년, 워싱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습니 다.¹⁾ 이상빈 선생님의 발표는 <한 명>과 <One Left> 텍스트를 비교해 재현의 전략을 살펴 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겁쟁이인 저로서는 위안부 소녀들이 처한 잔인한 상황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써 내려간 김숨 작가도, <한 명>의 글을 단어 하나까지 곱씹으며 들여다보며 작업한 (번역은 대충 읽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브루스 폴턴과 윤주찬 선생님도, <한 명>과 <One Left>의 문장 하나하나를 비교하며 전략을 잡아낸 (연구 또한 대충 살펴서는 알 수 없는 일 이죠.) 이상빈 선생님도 그저 대단해 보입니다. 겁쟁이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대 단한 분들입니다. 잔인함과 고통 앞에 기꺼이 마주했던 그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압도된 상태에서 토론이라는 이름의 지적질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욱 이 PPT 발표 자료만 본 상태에서, 실제 발표 때 말씀으로 전달하실 많은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 의견을 내려니 꼬끼리 다리 더듬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사소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원문이 어떻게 번역에서 재현되었는가를 살피면서 '그들'의 내러티브를 '우리'의 내러티브 로 바꾼 것, 부정대명사(generic) you를 사용한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두 사례 모두 원문에서 3인칭으로 처리된 부분의 거리감을 좁히는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감 정적 유대', '감정이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의문이 생깁니다. 작가 김숨도 충분히 이런 전략을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감정 자제를 선택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거리 좁히기가 좋은 선택이 될 까요? 어쩌면 번역가들은 거리 좁히기보다는 영어의 글쓰기 관습을 따른 것은 아닐까요? 번 역 전략과 영어 글쓰기 관습이라는 것은 과연 구분이 가능한 것일까요?

2.

번역 사례를 제시하면서 붙인 소제목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먼저 보면서 상상했던 것과는 사례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물 생각 풀어 설명하기'라는 소제목을 보고 번역에서 함축적 내용을 길게 설명했겠다

1) <One Left> 번역이 완료된 후 출판사를 찾기까지 무려 서른 두 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출판사의 의뢰를 먼저 받고 번역 작업을 하는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생입니다. 다행히 워싱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는 단 두 주 만에 출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앞선 서른 두 곳 출판사도 저처럼 겁쟁이어서 한국인 위안 부의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싶었지만 사례를 보면 화자의 마음 속 생각을 단도직입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포화’는 발표문의 사례, 즉 사람을 자동차 같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상황을 아우르기에 너무 약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유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보다 어떤 은유였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적 서브텍스트 강조하기’ 역시 소제목만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had to’와 ‘a certain source’ 두 가지의 삽입을 모두 서브텍스트(숨은 의미) 강조로 보신 것인가요? 발표 중에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원문이 일부러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감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건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사과 여부로 축소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책임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개인적 의견이 작용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3.

더욱 사소한 질문입니다. ‘의도적 생략’ 부분에서 소녀 이름 ‘석순’이 영어판에서는 ‘Kisuk’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4.

또 다른 사소한 질문입니다. ‘미주 명시화’의 출처 제목이 한국어의 로마자 음차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번역이 안 된 자료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영어권 독자들이 어떻게 증언을 찾을 수 있는지요? 제가 <One Left>를 읽지 않아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번역학을 전공하고 번역을 하는 사람인 동시에 대학에서 글쓰기 과목을 맡고 있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토론 준비를 하면서 번역보다는 글쓰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겁쟁이는 제대로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을 겁니다. 조금 더 용감해지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